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이지안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안영식 (동의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창업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실제 수행하는 현재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지원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역량을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모델구상단계, 벤처창업계획단계로 구분하여 7개 역량군에 대한 핵심역량 15개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우선순위는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창업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는 15개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최우선 순위는 6개 항목이었고, 차 순위는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순위의 역량과 차 순위의 역량을 종합하면 자기분석력,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으로 4개의 역량군으로 구분된다. 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과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기분석능력은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능력은 사업 아이디어가 꿈과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필요하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양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대학생 창업, 창업역량, 역량개발, 창업교육, 교육요구

1. 서론

우리 사회에 대학생 및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통계청, 2018),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청년 창업을 중시하고 있다(김향덕·이철규, 2018). 청년 실업률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이 제시되는 이유는 청년 창업이 고용창출과 청년 취업난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미국은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주요대학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Start British”를 통해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운영하고 있다(최대수·성창수, 2017). 이처럼 우리나라도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했는데, 주요사업으로 대학생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고, 이론보다는 실천형 창업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대학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창업학점을 교류할 수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과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해 창업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윤은지, 2018).

대학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창업강좌 개설 확대, 창업동아리 수 증가, 창업관련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휴학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창업교육 강좌와 활동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청년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창업교육 실시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 창업 지원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는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창업관련 법·제도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며, 정부의 지원제도가 대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tomoelee@nate.com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ays@deu.ac.kr

· 투고일: 2018-11-06 · 수정일: 2018-12-14 · 게재확정일: 2018-12-25

못해 각종 지원정책이 대학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최대수·성창수, 2017; 홍정표·양해술, 2014). 대학의 창업 교육은 창업역량 관련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역량이란 특정상황이나 직무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을 의미하고(Spencer & Spencer, 1993), 창업역량은 창업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조직화에 필요한 창업가의 특정 능력이라 할 수 있다(오재우·양동우, 2014). 이처럼 대학생의 창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창업교육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역량은 무엇이고, 창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행하는지에 대한 교육요구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역량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적합한 이지안·안영식(2018)의 청년 창업자 역량모형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창업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실제 실행하는 현재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 내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창업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확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하는 현재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교육요구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 창업역량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창업 활성화 정책은 대학 재학 중에도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창업 실패사례는 잇따르고 있다(이지안·안영식, 2018). 이처럼 실패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할 수 있다(노규성·강현직, 2012). 특히 OECD(2017)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창업역량과 창업에 관련한 지식보유 수준이 21.6%로 설문에 참여한 국가 38개국 중에서 36위로 아주 낮게 평가된다(김향덕·이철규, 2018).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창업 실패라는 시련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창업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김형철 외, 2015, 이지안·안영식, 2018).

역량은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다양한 직업이나 역할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다(구병모 외, 2010). 그러므로 대학생의 창업역량은 창업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이며(최대수·성창수, 2017),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

하는 창업자 사고이다(이지안·안영식, 2018). 창업과 관련된 역량에 관한 연구는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채연희, 2017; 최대수·성창수, 2017), 창업자 역량과 기업성과(정길호·김병근, 2017), 경영성과(양수희 외, 2011)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창업자의 창업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창업역량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Chrisman et al.(1998)은 창업자의 성공적인 역량을 조직역량, 전략역량, 기술역량, 창의성역량으로 제시하였고, Chandler & Jansen(1992)은 기업가의 기회 인지능력, 사업추진 능력, 개념적, 대인적, 정치적 능력과 전문적 기술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양수희 외(2011)는 창업역량을 창의성역량, 사회적역량, 시장인지역량을 강조하였고, 이지안·안영식(2018)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모형을 기반으로 창업의지확인단계에서는 자기분석력, 창업철학정립능력, 창업모델구상단계에서는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 벤처창업모델기획력,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능력, 조직시스템구축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창업역량은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Chandler & Jansen, 1992) 창업자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곽동신 외, 2016; 이지안·안영식, 2018)

Kirzner(1978)는 창업역량에 관해서 사업 기회를 창조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인지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창업자를 길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의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전략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통해 창업자를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규동, 2014; 이용희·박수홍, 2014; 이용희,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역량에 대한 현재의 상태(As-Is)와 바람직한 상태(To-Be) 간의 차이(gap)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2.2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창업교육의 응용형태로 처음 강의를 개설한 것은 1938년 일본의 고베대학이다(Mcmullan & Long, 1987). 그러나 창업교육을 가장 활발히 실시하는 곳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창업교육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1945년 Harvard 대학이 처음 도입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15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하였고, Babson 대학에서는 학부 전공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이장우·장수덕, 1999).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창업 강좌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이다. 이와 같은 창

업교육의 도화선이 된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97년 IMF로 인한 청년 실업대란 등의 사회적 상황은 창업열기를 확산시켜나갔다. 특히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정부 지원에 의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설되면서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창업관련학과와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기존 프로그램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최종인·황보윤, 2012). 이러한 노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창업교육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다. 초기 창업교육이 사례중심 또는 기존 경영학 이론을 기능적으로 활용해 갔다면, 새로운 창업교육은 실전 알고리즘 중심의 실습형 체화교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종인·황보윤, 2012).

2016년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창업진흥원, 2018) 창업 강좌를 운영한 학교는 422개의 대학 중에 313개교(74.2%)이며, 총 강좌 수는 10,461개, 수강인원은 385,571명이다. 전체 강좌 중 전공은 51.2%(5,352개), 교양과목은 48.8%(5,109개)이며, 전공과목의 비율이 교양과목보다 2.4% 높았다. 창업 강좌를 이론형과 실습형의 콘텐츠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이론형이 79.3%(8,295개), 실습형이 20.7%(2,166개)로 이론형 강좌가 실습형 강좌보다 4배가량 많았다. 이는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주목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창업 전반에 대한 실무과정과 사업운영과정 등과 같은 실습형 과목이 부족하여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전문지식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정부와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교수 등은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준비 단계의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허선영 외, 2017).

대학에서 창업교육은 창업하는데 필요한 특정기술을 익히는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에서 창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용희·박수홍, 2014). 이는 창업이 자신의 회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들어가 사내창업 (intra-entrepreneurship)을 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최종인·박치관, 2013). 이러한 창업교육에 대한 활동은 앞으로의 창업분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창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창업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실제 실행하는 현재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3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단과대학별로 비확률적 편의표집에 의해 5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24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1부를 제외한 총 373부(회수율: 74.6%)를 통계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창업역량의 요구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대학생, 청년, 창업, 벤처, 역량 등 연구주체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이용하여 고찰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역량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연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대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 동안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이용희, 2016)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이지안·안영식, 2018)를 기반으로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모델구상단계, 벤처창업계획단계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대학생 64명에게 사전조사(pilot test)를 하였고, 설문지의 이해정도와 용어선택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1>.

<표 1> 설문지 수정사항

수정전		수정후	
1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1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2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2	동일
3	나는 기업의 구성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3	내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4	나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 공감적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4	나는 직원들과 공감적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5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확립하고자 한다.	5	동일
6	나는 새로운 기회나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지하여 기회는 포착하고 문제에 대비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한다.
7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	7	동일

8	나는 경쟁사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한다.	8	동일
9	나의 창업 제품/서비스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경쟁사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동일
10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	10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과 일정을 수립한다.
11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다.	11	나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다.
12	나는 창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	동일
13	나는 새로운 도전적 상황에서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	13	나는 도전적 상황에서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
14	나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재정 상태를 작성할 수 있다.	14	나는 조직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재정 상태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5	나는 인재중심 조직문화를 중시한다.	15	나는 인간중심 조직문화를 중시한다.

연구도구는 각 역량 방향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점은 매우 중요함’까지와 수행하는 현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점은 매우 부족함’에서 ‘5점은 매우 우수함’까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뢰도는 중요도에서 .913, 실행도에서 .922로 높게 나타났다. Cronbach α 값이 .6 이상이면 측정 항목간의 내적일관성이 양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 도구로 평가되는 기준에 따라 본 연구도구는 적합한 측정 도구로 확인된다(송우용·황경연, 2012). 게다가 연구도구는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요구도 측정문항 외에도 성별, 학년, 전공계열, 창업강좌 및 창업지도기관의 상담경험, 향후 창업계획 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 t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첫째, 대학생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고,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분석은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 탐색은 Borich의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Borich의 교육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Borich의 요구도는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t검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계산하였다. Borich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Borich 계수} = \frac{\sum(RCL - PCL) \times RCL}{N}$$

RCL(Required Competence Level): 중요도(필요수준)
 PCL(Present Competence Level): 실행도(현재수준)
 RCL: 중요도 평균
 N: 전체 사례의 수

Borich(1980)의 요구도 분석은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이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순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김지수 외, 2018; 조대연, 200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은 중요도를 가로축,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구분하여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사분면에 나누어 우선순위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Mink et al., 1991). 1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으면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큰 영역이다. 그러나 The Locus for Focus Model은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좌표평면 한 부분에 점이 몰려 해석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The Locus for Focus 분석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역량과 Borich 요구도 우선순위의 역량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역량을 최우선 역량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1> The Locus for Focus Model

IV.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창업상담 경험, 창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40.5%)보다 여성(59.5%)이 19% 많았다. 학년은 1-4학년 중에서 1학년이 38.6%로 가장 많고, 2학년이 15%로 다른 학년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았다. 전공은 인문계열 단과대학은 인문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등이고, 자연계열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등이 포함된다. 공통계열은 사범대학, 예체능대학 등이며, 자연계열의 응답 비율이 5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창업상담경험은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83.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향후 창업계획 여부는 창업계획이 없다고 62.7%가 응답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51	40.5
	여성	222	59.5
학년	1학년	144	38.6
	2학년	56	15.0
	3학년	80	21.4
	4학년	93	24.9
전공계열	인문계열	114	30.6
	자연계열	210	56.3
	공통계열	49	13.1
창업상담경험	있다	60	16.1
	없다	313	83.9
창업계획	있다	139	37.3
	없다	234	62.7
조사대상자 총수		373	100.0

4.2 창업역량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수준 분석

창업역량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창업역량 측정도구(이지안·안영식, 2018)를 활용하여 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 15개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중요도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수준이고, 실행도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수준이며,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창업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가 15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p<.001에서 유의미하였고, 15번 문항은 p<.01에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전체 창업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비교하면 모든 역량에서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창업역량은 창업철학정립능력의 4번 문항(4.39)-‘나는 직원들과 공감적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이고, 중요도가 가장 낮은 창업역량은 창업철학정립능력의 3번 문항(4.05)-‘내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이다. 실행도가 가장 높은 창업역량은 창업철학정립능력의 4번 문항(3.99)으로 중요도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행도가 가장 낮은 창업역량은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의 7번 문항(3.37)-‘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이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난 창업역량은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의 7번 문항(0.99)이고, 가장 적게 차이가 난 창업역량은 조직시스템구축능력의 15번 문항(0.17)-‘나는 인간중심 조직문화를 중시한다.’이다.

<표 3> 창업역량 인식수준

단계	역량	문항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 - 실행도		t값
			M	SD	M	SD	M	SD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 분석력	1	4.31	0.73	3.55	0.85	0.76	1.04	14.08***
		2	4.24	0.69	3.57	0.83	0.67	0.98	13.15***
	창업철학 정립능력	3	4.05	0.73	3.80	0.83	0.26	0.89	5.56***
		4	4.39	0.66	3.99	0.81	0.40	0.81	9.66***
		5	4.12	0.75	3.77	0.85	0.35	0.90	7.43***
창업모델 구상단계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	6	4.33	0.75	3.41	0.93	0.92	1.13	15.70***
		7	4.36	0.72	3.37	0.96	0.99	1.15	16.61***
	아이디어	8	4.34	0.71	3.50	0.97	0.83	1.07	15.06***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	9	4.27	0.73	3.55	0.91	0.72	1.01	13.86***
		10	4.16	0.75	3.43	0.97	0.74	1.12	12.66***
		11	4.21	0.77	3.54	0.93	0.66	1.06	12.10***
벤처창업 계획단계	사업계획 PT 능력	12	4.35	0.74	3.47	0.94	0.88	1.07	15.92***
		13	4.23	0.76	3.48	1.03	0.75	1.15	12.61***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14	4.08	0.77	3.45	1.01	0.63	1.04	11.72***
		15	4.12	0.84	3.95	0.91	0.17	0.94	3.40**

p<.01, *p<.001

4.3 창업역량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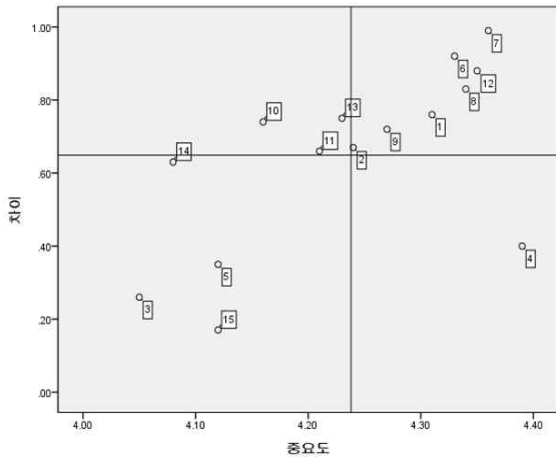
Borich 요구도 분석에 따라 대학생의 창업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의 7번 문항(4.32)이 가장 높았고,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의 6번 문항(4.00)-‘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한다.’,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능력의 12번 문항(3.83)-‘나는 창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값을 t검정값과 비교해 보면 각각의 순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 일치하지 않은 순위는 2, 3, 6, 7, 9 순위의 5개의 역량이다. 예를 들어 2순위에서 t검정은 12번 문항, Borich 요구도 값은 6번 문항이고, 3순위는 t검정은 6번 문항, Borich 요구도 값은 12번 문항이다. 이는 t검정이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반면, Borich 요구도 값은 중요도에서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순위가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Borich 요구도 값은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순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창업역량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사분면(HH)은 중요도가 높으면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큰 영역으로 이에 속한 창업역량은 자기분석력의 1-2번 문항,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의 6-7번 문항,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의 8-9번,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능력의 12번 문항으로 총 7개 역량이다.

<표 4> Borich 요구도 분석

단계	창업역량	문항	Borich 요구도	순위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의지확인단계	창업철학정립능력	2	2.84	9	
		3	1.04	14	
		4	1.78	12	
		5	1.42	13	
		6	4.00	2	
창업모델구상단계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	7	4.32	1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8	3.60	4
		벤처창업모델 기획력	9	3.09	7
		10	3.07	8	
		11	2.80	10	
		사업계획PT 능력	12	3.83	3
		13	3.16	6	
벤처창업계획단계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14	2.57	11	
		15	0.68	15	



<그림 2>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결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1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과 동일한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 분석의 우선순위를 상호 비교하여 최우선 순위의 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데(조대연, 2009), Borich 요구도 분석에 의해 도출된 우선순위 창업역량과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우선순위 창업역량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창업역량은 총6개의 역량이며, 각 문항은 ‘나는 내가 잘하는 일과 잘 못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1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한다(6번).’, ‘나는 떠오른 생각을 잘 다듬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7번).’, ‘나는 경쟁사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한다(8번).’, ‘나는 창업 제품/서비스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경쟁사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9번).’, ‘나는 창업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12번).’이다. 차 순위에 해당하는 창업역량은 총2개의 문항이며, 각 문항은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2번).’,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상황에도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13번).’이다. 최우선 순위의 역량과 차 순위의 역량을 종합하면 대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창업아이디어도출능력과 아이디어타당성분석력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기분석력에서는 창업하자고자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능력은 사업 아이디어가 꿈과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필요하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양되어야 한다.

<표 5>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비교

창업역량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우선순위
단계	역량	문항			
창업의지 확인단계	자기 분석력	1	5	○	●
		2		○	○
	창업철학 정립능력	3			
		4			
		5			

창업역량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우선순위
단계	역량	문항			
창업모델 구상단계	창업아이디어 도출능력	6	2	○	●
		7	1	○	●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8	4	○	●
		9	7	○	●
	벤처창업모델 기획력	10			
11					
벤처창업 계획단계	사업계획 PT능력	12	3	○	●
		13	6		○
	조직 시스템 구축능력	14			
		15			

● :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가 최우선 순위인 역량
○ :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가 차 순위인 역량

V. 결론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창업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여전히 제대로 된 창업교육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정헌배, 2017). 비록 일부 연구자들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실습과 체험 중심의 교육 콘텐츠 부족, 전문 강사의 부족 등이 창업교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수 외, 2014).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중심의 창업교육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의 창업역량 개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창업계획이 있으나 창업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창업을 계획하는 139명(37.3%) 중에 창업상담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1명(22.3%)에 불과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창업강좌 또는 창업상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빈봉식·박정기, 2002)와 창업자의 창업교육과 경영상담의 경험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조준희 외, 20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 창업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로서 필요한 역량수준은 4.05~4.39이었고, 대학생의 현재 역량수준은 3.37~3.99로 나타나 현재의 창업역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창업역량과 창업에 관련한 지식보유 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OECD(2017) 보고서의 결과와도 상통한다. 창업자의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자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곽동신 외, 2016; 이지안·안영식, 2018).

셋째,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은 자기분석, 창업 아이디어 도출 및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부족과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를 고려해 본다면 조직 구축이나 창업자금 확대, 마케팅 채널 확보 등을 위한 교육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는 창업자일수록 창업 후에 실제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적인 교육의 요구가 높고, 비창업자일수록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요구가 높다는 연구(이명숙·원상봉, 2013)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율도 높다는 선행연구(노규성·강현직, 20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 아이디어 도출과 분석 중심이 아니라 자기분석을 통한 창업의지를 확고히 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의 수단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역량 개발을 통해 창업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창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부산지역의 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지역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요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단과대학별로 비확률적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하여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다수 포함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제한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하는데 필요한 특정기술을 익히는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에서 창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이용희·박수홍, 2014).

둘째,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일부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방법, 교육공학 등과 같은 교육학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의 효과성 부족 등과 같은 부실한 교육과 교과 및 교과내용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산학협력교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관련 전공 학위 과정에서 창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규수·여경은, 2016).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연구를 다양한 방법적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은 다양하며, 대학생 개개인 또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자의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또한 표준화보다는 다양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이용희·박수홍, 2014). 즉 대학생 개개인에 맞춘 처방적이고 체제적인 교육적 프로그램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양적 및 질적으로 연구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

- 곽동신·정화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 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37-48.
- 구병모·김기호·김종규(2010). 역량과 역량모형의 연구: 역량모형 연구의 현 주소, *인적자원개발연구*, 13(1), 131-154.
- 김규동(2014). 아프리카 여성 앙트러프러너십 발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1, 3-34.
- 김상수·김영천·이지형(2014). 경영시뮬레이션게임 교육과 창업교육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9(5), 117-146.
- 김지수·강유민·이수영(2018).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교사와 학부모의 구강보건교육 내용 우선순위 요구분석, *치위생과학회지*, 18(4), 252-264.
- 김향덕·이철규(2018). 청년창업자 특성과 창업불안과의 관계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2), 53-76.
-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 노규성·강현직(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79-87.
-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135-158.
- 송우용·황경연(2012). 벤처기업의 전략 및 성과에 대한 외부환경과 조직자원 및 능력의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369-387.
- 양수희·김명숙·정화영(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6(4), 195-213.
- 오재우·양동우(2014). 멘토링기능이 청년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9(5), 115-127.
- 윤은지(2018.05.25.). *대학 창업교육 강화 학생 창업기업 5000개 목표* 벤티타스 알파. Retrieved fro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41>
- 이명숙·원상봉(2013).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창업자, 예비창업자, 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2(2), 99-134.

- 이용희(2016). *벤처기업 창업자의 핵심역량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희·박수홍(2014).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탐색, *벤처창업연구*, 9(6), 231-244.
- 이장우·장수덕(1999). 미국 4개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 *벤처경영연구*, 2(2), 57-90.
- 이지안·안영식(2018).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벤처창업연구*, 13(4), 197-209.
- 정길호·김병근(2017). 창업환경 요소가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역량,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2), 232-255.
- 정현배(2017). 창업교육의 효율적 설계와 실천방안에 관한 고찰, *벤처창업연구*, 12(1), 123-132.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 조준희·김찬중·송명규(2012). 자영업 창업가의 특성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경영상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5(1), 19-39.
- 창업진흥원(2018). *2017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 대전: 창업진흥원.
- 채연희(2017). 대학생의 기업가적역량이 취업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실패인식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2(4), 165-183.
- 최대수·성창수(2017). 대학생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 IT 역량, 창의성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 *벤처창업연구*, 12(1), 101-109.
- 최종인·박치관(2013).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8(3), 85-96.
- 최종인·황보윤(2012).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벤처창업연구*, 7(1), 207-214.
- 통계청(2018).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Retrieved (2018.05.06.)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65835.
- 하규수·여경은(2016). 창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221-231.
- 허선영·장후은·이종호(2017).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75-84.
- 홍정표·양해술(2014).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141-157.
- Bin, B. S., & Park, J. K.(2002).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4(3), 135-158.
-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 Education*, 31(3), 39-42.
- Chae, Y. H.(2017).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mploy-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 and moderating effect of fear on start-up,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4), 165-183.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o, D. Y.(2009).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 165-187.
- Cho, J. H., Kim, C. J., & Song, M. K.(2012). A study of the entrepreneurship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business school and management consult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1), 19-39.
- Choi, D. S., & Sung, C. S.(2017).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competency, creativity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market perception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01-109.
- Choi, J. I., & Hwangbo, Y.(2012). Development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07-214.
- Choi, J. I., & Park, C. G.(2013).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versity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85-96.
- Chong, K. H., & Kim, B. K.(2017).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factors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organizational culture, external cooperation,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232-255.
- Chrisman, J. J., Chua, J. H., & Sharma, P.(1998). Important attributes of successors in family businesses: An exploratory study, *Family Business Review*, 11(1), 19-34.
- Goo, B. M., Kim, K. H., & Kim, J. K.(2010). Study on competency and competency model: Current state of competency model,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3(1), 131-154.
- Ha, K. S., & Yeo, K. E.(2016). A study on the improving training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221-231.
- Heo, S. Y., Jang, H. E., & Lee, J. H.(2017). Explo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in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75-84.
- Hong, J. P., & Yang, H. S.(2014).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41-157.
- Jeong, H. B.(2017). A study on the efficient design & practices for the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23-132.
- Kim, H. C., Lim, A. R.,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2), 27-58.
- Kim, H. D., & Lee, C. G.(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you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53-76.
- Kim, J. S., Kang, Y. M., & Lee, S. Y.(2018). A needs analysis oral health education contents for teachers and

- parents using Borich priority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8(4), 252-264.
- Kim, K. D.(2014). A study on African women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issues toward women doing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41, 3-34.
- Kim, S. S., Kim, Y. C., & Lee, J. H.(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business simulation gam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5), 117-146.
- Kirzner, I. M.(1978).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8).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survey of university start-up in 2017*, Daejeon: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Kwak, D. S., Jung, H. Y., & Kim, M. S.(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37-48.
- Lee, J. A., & Ahn, Y. S.(2018).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97-209.
- Lee, J. W., & Chang, S. D.(1999).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merica,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2(2), 57-90.
- Lee, M. S., & Won, S. B.(2013).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he case of founders, prospective founders and non-founde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2), 99-134.
- Lee, Y. H.(2016). *Development in Core Competence Model of Venture Entrepreneurs*,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Y. H., & Park, S. H.(2014).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venture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31-244.
- Mcmullan, W. E., & Long, W. A.(19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nine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61-275
- Mink, O. G., Shultz, J. M., & Mink, B. P.(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TX: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 Noh, K. S., & Kang, H. J.(2012).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79-87.
- OECD(2017). *The Missing Entrepreneurs 2017*, Available at <http://www.oecd-ilibrary.org>.
- Oh, J. W., & Yang, D. W.(2014). The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s and young generation start-up compete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preliminary period & start-up aim perio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115-127.
- Song, W. Y., & Hwang, K. Y.(2012). Effects of extern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on strategy and performance: An evidence from an analysis on ventur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369-387.
- Spencer, L. M., & Spencer, S. M.(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tatistics Korea(2018.1.10.). *December 2017 and Annual Employment Trends*. Retrieved (2018.05.06.)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65835.
- Yang, S. H., Kim, M. S., & Jung, H. Y.(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competenc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195-213.
- Yoon, E. J.(2018.05.25.). Reinforce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The goal of 5,000 student startups, *Veritas α*, Retrieved fro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41>

Analyzing Education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

Lee, Ji An**
Ahn, Young Sik***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increased, universities are conducting various program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 demand for a competency-orien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realize the entrepreneurial idea is not fully reflected.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ovid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facilitation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f university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level of performance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entrepreneurship is classified the step of confi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drawing up a start-up model, and planning a venture start-up.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the t-test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level of importance and level of performance with the 15 items of 7 competencies. This study is used Borich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o know the priority of education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 As the result of study,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es between level of importance and level of performance are shown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15 items, the first priority is 6 items and the second priority is 2 items using Borich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Four competence clusters such as self-analytic competence, ability of eliciting entrepreneurial idea, ability of analyzing idea validity, and business-plan presentation competency are suggested with the combination of first and second priority competence. In order to develop each competence, ability of eliciting entrepreneurial idea and ability of analyzing idea validity are the key of education, self-analytic competence is needed to strengthe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plan presentation competence is cultivated as the ability of persuading investors to realize business ideas and is applied to business situation.

Keywords: University Student Start-u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Need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Foundation Grant(2018)

** First Author,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omoelee@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and Youth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ays@deu.ac.kr